CHUNCHEON URBAN REGENERATION
NEWS MAGAZINE

2024 SUMMER | VOL.14

춘천도시재생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 치읗치읗 14호

발행호 14호 | **발행일** 2024년 06월 10일 | **창간일** 2020년 10월 01일 |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발행인** 신현만
편집위원 이경은, 성현아, 이해인, 김준희 | **디자인/인쇄** 내일기획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3 시청별관 3층(T.033-245-5264) | **협조** 춘천시

uris.chuncheon.go.kr | uris.chuncheon.go.kr/webzine





SPECIAL

2024 조운위크 봄

우리 같이 노랑, 우리 같이 봄

마을의 새로운 문화 공간, 북카페 보니 | 함께해 보니, 행복한 '보니'
살듯 여행하는, 여행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 춘천일기 스테이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2024 SUMMER **Vol.14**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NEWS MAGAZINE

FOCUS 춘천

04
특집 조운소양
2024 조운위크 봄
우리 같이 노랑
우리 같이 봄

10
교동소양
함께해 보니, 행복한 '보니'
마을의 새로운 문화 공간
북카페 보니

16
조양운교
우리 동네 홍보맨은 내가!
조양운교 도시재생 예비사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24
약사명동
우리 마을 공구대여소
만들기 프로젝트
목공 교육 프로그램

LOVE 로컬

30
춘천덕질
춘천일기 스테이
살듯 여행하는,
여행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38
약사리문화마을 주민기록
도자기 굽고
기타 선율이 흐르는 마을

42
약사리문화마을 주민기록
테라코타 예술 프로그램으로
빛나는 지역 활기
약사명동, 예술의 새로운 산실로!

KEYWORD 도시재생

46
교육
2024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대학원대학
#도시재생실무자필수코스
#역량강화
#도시재생교육

52
도서 리뷰
LOCAL BRAND REVIEW 2023
#모종린
#로컬이강한도시와동네를탐하다
#로컬생태계

NEWS

58
단신/포토뉴스



조운동에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육동한 춘천시장



춘천 명소를 디자인한 마그넷 굿즈

발행호 통권 14호
발행일 2024년 06월 10일
창간일 2020년 10월 01일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신현만
편집위원 이경은, 성현아, 이해인, 김준희

디자인/인쇄 내일기획 (T.033-261-5364)
문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T.033-245-5264)

우리 같이 노랑, 우리 같이 봄

2024 조운위크 봄

글/사진 성현아 코디네이터(조운동)

사업명 2024 조운위크 봄
기 간 2024. 04. 27. ~ 28.
장 소 춘천시청광장 일대
내 용 공연, 체험, 이벤트 등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조운위크 시리즈가 올해에도 조운위크 봄의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봄이라는 계절, 듣기만 해도 두근두근하기도 하죠. 봄의 기운을 마음껏 느끼고 즐기며 잊혀가는 원도심의 활기를 가득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준비했답니다. 24년도의 첫 조운위크 시리즈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2024 조운위크 봄〉은 4월 27일(토)~28일(일) 이틀간 춘천 시청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채로운 공연들과 체험, 포토존, 이벤트존, 팝업 홍보관까지 다양하게 준비하였답니다.



친환경 설거지바 만들기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조운위크 '봄'인 만큼 봄과 꽃이 테마인 색다른 체험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흙이 필요 없는 공기정화식물로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유리 볼 테라리움 체험', 알록달록 스칸디아모스를 다양한 RHC 액자에 넣어보는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오일 파스텔로 꽃 도안을 색칠해 보는 '플라워 컬러링', 벚꽃 모양의 친환경 설거지 바를 만들어보는 '친환경 벚꽃 설거지바 만들기', 시향 후 나만의 '향수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들로 꾸려져, 행사장을 방문한 어린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신기하고 재밌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답니다.



유리볼 테라리움 체험



향수 만들기





솜사탕 체험

함께 준비된 깜짝 이벤트였던 조운동 상권 영수증 이벤트와 SNS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조운동 상권 내 당일 영수증을 지참하기만 한다면 조운동네 굿즈 및 다양한 상품을 뽑아볼 수 있는 뽑기와 SNS 이벤트 참여자를 위한 솜사탕 만들기 체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솜사탕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신기한 체험이었죠! 어린이들과 시민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퀸즈 마칭밴드

행사에는 공연이 빠질 수 없겠죠?! 첫 번째 공연으로는 **퀸즈 마칭밴드**의 개막 퍼레이드와 함께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운 5번가 광장부터 시작되어 명동거리와 시청 광장을 무대로 한 이동형 퍼포먼스 공연이었는데요. 밴드의 발걸음과 음악 소리에 자연스레 따라오는 아이들과 시민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원대학교 밴드동아리 꾼



강원일보 어린이합창단

1985년 창단하여 4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강원일보 어린이 합창단**의 봄을 노래하는 무대와 떨림과 설렘이 가득한 모습으로 청춘을 연주했던 **강원대학교 밴드 동아리 꾼**의 무대로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답니다.





아디오스 매직

행사장을 방문했던 어린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마술공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기다리던 마지막 공연으로 **아디오스 매직팀**의 다채로운 마술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람하는 어린이는 물론 시민들의 호응을 자연스레 이끌어내며 첫째 날 조운위크 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VARNISH



삑삑이의 코믹마임쇼

이어진 둘째 날의 오프닝 공연으로는 춘천의 인디 록 밴드이자 여성 듀오 밴드 VARNISH의 무대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 시민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이어지는 무대의 주인공은 거리의 행복한 광대 **삑삑이의 코믹마임쇼**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본 무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이들과 잔디에 앉아 게임도 하며 이미 친해진 듯한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답니다. 역시나 준비된 무대는 보기만 해도 까르륵 웃음소리가 절로 나오고 관객들과 코미디로 소통하며 자연스레 빠져들었던 시간이었답니다.



아라 댄스 아카데미



그림하일드

다음으로 이어진 **아라 댄스 아카데미**의 멋있는 댄스 공연! 초등팀 아라키키와 중등팀 레고아라의 준비된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무대가 좁게 느껴질 만큼 열정적인 댄스 공연으로 감탄을 자아내기에도 모자랄 만큼 멋있는 공연을 선보였답니다. 인디밴드 **그림하일드**가 준비한 마지막 공연! 집에 가려는 발걸음을 뗄 수 없을 만큼 호소력 짙은 무대로 조운위크 봄을 풍성히 마칠 수 있었답니다.







봄의 이름치곤 조금 뜨거웠던 행사날이었지만 삼삼오오 구경 온 시민분들의 모습부터 준비된 이벤트들을 모두 즐기고 가리라! 열심히 참여하던 모습까지 보며 함께 푹 빠져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행사를 즐겨 주신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어질 조운위크의 다음 시리즈도 기대해 주세요!

마을의 새로운 문화 공간, 북카페 보니

함께해 보니, 행복한 '보니'

글/사진 이해인 코디네이터(교동소양)　　**인 터 뷰** 강앵란·이선화 바리스타(교동소양 주민)

싱그러운 봄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고소한 향기를 쫓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곳'에 도착해 있었다.
커피와 책, 고운 앞치마를 입고 싱그러운 미소를 띤
바리스타가 반겨 주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

사 업 명 북카페 공간 운영 사업

장　소 커뮤니티 돌봄센터 A동 2층, 북카페 보니(춘천시 옥천길 40번길16)

기　간 2024. 04. 01. ~ 2024. 06. 27. (주말, 공휴일 휴무)

내　용 교동·소양동 주민과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북카페 공간 운영 및 커피 무료 제공





북카페 내부



바리스타님들 일하시는 모습

교동·소양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거점시설 중 한 곳인 커뮤니티 돌봄센터 A동 2층에 '이곳'의 정체가 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교동·소양동 주민이 바리스타로 주축이 되어 직접 북카페 공간 운영과 커피 및 음료를 무료로 만들어 제공해 주는 '북카페 보니'이다.

무료로 내려주는 커피라고 주민 바리스타의 커피의 맛을 만만히 본다면 큰 실수이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기 위해 얼음과 물의 양을 세심하게 조절하는 것은 기본이며 단골 방문객의 취향을 기억해 원 샷과 투 샷을 맞춰줄 만큼 섬세한 손길로 맛과 향을 균형 있게 담아낸다. 북카페 보니의 주민 바리스타들은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수단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방문객들에게도 전달되어 인근 대학생 사이에서는 시험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작은 위로의 장소로, 직장인에게는 점심시간 휴식의 장소로, 어르신에게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하루 평균 70~80여 명의 방문객이 오고 간다. 시니어의 나이대인 북카페 보니의 주민 바리스타들은 커피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북카페 보니의 주민 바리스타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자세한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Interview

강앵란·이선화 바리스타

안녕하세요. 북카페 보니의 주민 바리스타님들!
북카페 보니에서 바리스타로 일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강앵란 교동에 이런 좋은 건물에서 북카페 운영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화 춘천시의 재생사업을 통해 꽃차와 다식 수업을 시작으로 커피 로스팅, 바리스타 교육, 카페 운영까지 계속해서 배우며 실전으로 카페를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스타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화분



북카페 포토존 사진



바리스타님들의 커피 맛이 일품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직접 운영해 보시며 보람 또는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강앵란 손님들이 들어오실 때부터 미소를 탁 지니고 오시고 나갈 때도 잘 먹었다고 감사 인사를 하시니까 이런 순간들이 즐겁고 보람되는 거 같아요.

이선화 내가 직접 배워서 내린 커피를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니까 다들 커피가 맛있다고 즐거워하시고 칭찬과 응원을 주시니, 그게 큰 보람으로 다가오는 거 같아요.

**서로에게 건네는 커피만큼이나 따뜻한 마음들이 느껴지네요!
나날이 북카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일하시기 힘드실 텐데도
항상 웃으며 일하실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강앵란 오셔서 얼마냐고 물어보실 때 무료로 드린다고 말하면 다들 기분 좋게 놀라요. 그럼 나도 덩달아 웃음이 나요. 이렇게들 좋아하시는데 웃으며 일할 수밖에 없죠.

이선화 비결이랄 건 없고, 오시는 분들이 즐겁게 와 주시고 우리도 음료를 무료로 드릴 수 있으니까 서로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북카페가 교동에 있는 줄 몰랐다고, 다음에 올 땐 친구도 데리고 오겠다고 말하는 신난 손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즐겁게 일하고, 이런 장소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 얼마나 좋게요.



손님들이 이용 중인 북카페 모습



북카페 내부



바리스타님들과 주민분들 모습

**바리스타님들의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손님들도 힘을 얻고
가실 거 같네요! 마지막으로 찾아오시는 주민분들과 춘천시민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강앵란 마을분들이 연세가 많고 하니까 자주 못 오는 게 교동 주민으로서 아쉬움이 생겨요. 함께 공유하고 나눔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만날 기회가 생기니 좋아요. 자주 놀러 오세요.

이선화 조합원이 구성될 경우를 생각해 '보니'를 통해 카페 운영을 배우는 중인데 운영을 해보니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갈 거 같아요. 만일 조합이 구성되어 문을 열게 된다면 주민들과 춘천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와 주면 좋겠어요.

커피와 책, 누군가에겐 피로를 이겨내고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는 에너지를 주고, 누군가에겐 잠시 일상을 벗어나 새로움을 경험하게 해주는 지혜를 준다. 북카페 보니가 단순한 카페 운영을 넘어 주민이 중심이 되어 방문객에게 일상의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조양운교 도시재생 예비사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우리 동네 홍보맨은 내가!

글/사진 김보희 코디네이터(춘천시) **인터뷰** 안녕하는 사이

사업명 조양운교 마을 홍보 역량강화교육
장 소 조운소양 현장지원센터 회의실
기 간 2024. 04. 11. ~ 2024. 06. 30.
내 용 마을 홍보를 위한 주민 및 청년 사진, 영상 교육



조양·운교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일환인 마을홍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4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발적인 마을 홍보를 위해 주민과정 8회, 청년 과정 5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연령 별 맞춤교육으로 운영되며 60~70대 주민들이 보는 조운동의 모습과 20대 청년들이 보는 조운동의 모습을 각자의 시선과 영감을 통해 사진과 영상 그리고 글로 지역의 모습을 홍보해보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참여자들의 결과물이 6월 8일부터 18일까지 남춘천역 문화공간 '역'에서 전시될 예정이니 한 번쯤 꼭 들러서 관람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동네 홍보맨

마을을 홍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역 홍보를 얼마나 접해봤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주민들에게 최고의 홍보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입소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필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우리 동네 홍보맨〉 프로젝트!!

우리 동네 홍보맨 프로젝트는 마을 홍보 교육을 수강 중인 지역주민과 청년들의 시선에 담긴 조운동을 소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에서 40년 이상 거주하신 주민들이 자랑하고 소개하고 싶은 조운동과 아직은 어색해서 알아가고 싶은 동네 조운동의 모습을 사진과 글을 통해 알리는 작업입니다.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에 함께해주신 최현수 서포터즈의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 함께 보실까요?





청년의 시선이 닿은 조운동

Interview
최현수 서포터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최현수라고 합니다. 23살이고 원래 학교는 서울인데 본가가 춘천이에요. 지금은 휴학 중이어서 춘천에 내려와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참여해보면서 경험을 쌓고 있어요. 조양운교 홍보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서포터즈로 참여하면서 블로그에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있어요.

조운동이라는 지역을 원래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춘천에서 자랐는데도 조운동은 잘 몰랐어요. 사업지 일대가 약사명동인 줄 알았어요. 조운동도 조양동, 운교동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것도 이 프로그램하면서 알게 됐어요.



설레는 첫만남



스마트폰 사진 촬영 준비



조운동 촬영 후
사진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



나를 소개합니다

대학생의 시선에서 조운동은 어떤 지역인 것 같나요?

처음 골목길 탐방했을 때는 썰렁하긴 하지만 좀 아기자기 함이 묻어 있는 정감 가는 동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과정을 어르신들과 같이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되게 이 동네를 아끼는데 일부러 뭔가 모질게 얘기하시거나 뭔가 우리 동네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분들도 마을을 사랑하는데 뭔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민들이 청년에게 들려주는 지역 이야기



내가 작가와 모델이 되어 보다

조운동, 이것을 알리고 싶다 하는 것이 있나요?

사실 사업지역이 주택 단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공간적인 걸 딱히 알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좋았던 것은 청년과정에서 주민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직접 동네를 소개하는 콘텐츠인데, 통장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통장님들도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는 것을 되게 좋아하셨고요. 청년들은 요즘에 좀 남의 집에 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주민분들이 우리를 반겨주시고 마을을 설명해 주셔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아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을 알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부탁드려요.

지역 안에 빈집이 되게 많았어요. 굉장히 멋진 건물인데 방치된 경우도 많아서, 이런 빈집들을 문화 공간으로 변신시켜서 활성화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운 사진 교육



김용던 작가님(덕이필름 대표)



청년과정 단체사진

해봐야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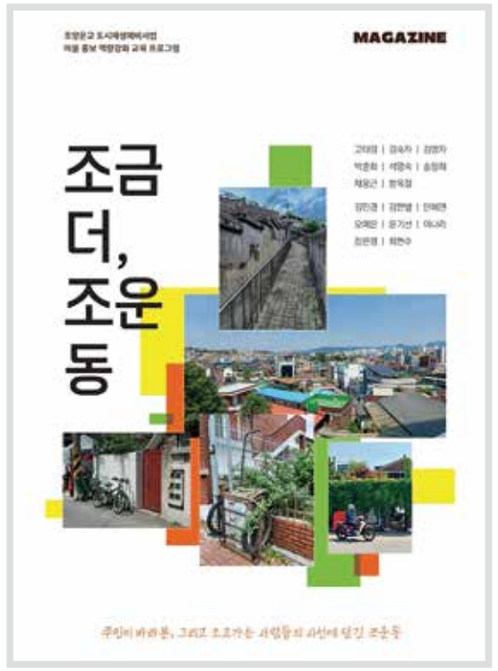
처음 홍보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지역 특성상 조운동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인데 프로그램 참석자가 모일까? 청년들은 조운동을 궁금해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주민과정, 청년과정 모두 모집 인원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뿐인 이 동네를 무엇을 홍보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참여 주민이 얘기해주신 조운동 홍보 거리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조운동 주택가의 골목길 풍경, 김숙자 통장님의 귀염둥이 부귀리에서 데리고 온 강아지 '부귀리' 그리고 채웅근 선생님이 자랑하고 싶은 '나'등등…. 단순히 맛집, 핫한 카페만이 지역의 자랑거리로 생각한 제 고정관념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자체가 자랑하고 알릴 수 있는 홍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마을 홍보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남춘천역 문화 공간 '역'에서 전시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내가 작가와 모델이 되어 보다



주민들이 청년에게 들려주는 지역 이야기



〈조금더, 조운동〉 매거진



스마트폰 사진 촬영 준비



사업지 일대 촬영 사진 피드백

<조금더, 조운동> 전시회

- **일 시** : 6. 10. (월) ~ 6. 19. (수)
- **장 소** : 남춘천역 (하부) 1층 문화공간 '역'
- **내 용** : 우리동네 사진전
  - 조양·운교동 마을 홍보를 위해 지역주민이 촬영한 사진 전시 (20여점)
  - 도시재생예비사업 '마을홍보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 '조금더, 조운동' 매거진 배부

목공 교육 프로그램

우리 마을 공구대여소 만들기 프로젝트

글/사진 김준희 코디네이터(약사명동)　　**인 터 뷰** 손제준 목수(목공 교육 전임 강사)

사업명 목공 교육 프로그램　　기　간 2024. 04. 25. ~ 2024. 05. 30.

장　소 집수리도서관 1,2층　　내　용 공구수납장 설계, 조립 및 설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요즘, 약사명동의 집수리 도서관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을 공구대여소 만들기 프로젝트'가 그 주인공이랍니다!

"목공을 통해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집안 곳곳에 여러분의 손길을 더하고 싶으신가요?"
평소 나무로 된 가구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공 교육 프로그램'은 4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참여 주민분들은 목공 교육의 기초인 목재의 이해부터 실측하는 법, 가구 도면 보는 법, 공구 사용법 등 목공의 A부터 Z까지 제작의 전 과정을 배우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1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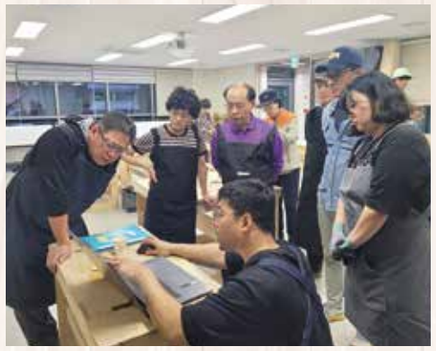
첫 회차에서는 공구수납함 설치 장소인 집수리도서관의 2층 창고 내부 실측 및 목재의 특성 및 공구 사용법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회차




두 번째 회차에서는 실제로 서랍을 만들어보는 실습이 이루어졌는데요.
서랍에 사용할 나무를 사포질 후 서랍 모양을 갖춰 타카로 고정한 다음 나사를 박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회차




세 번째 회차에서는 서랍이 들어갈 틀 제작과 레일 부착 작업을 진행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작업 중 가장 많은 정확성과 세심함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주민분들께 다소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강사님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몇 번의 시도 끝에 성공적으로 레일을 부착하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납장에 한 번에 쏙~ 잘 들어갔답니다.

4회차




네 번째 회차는 총 3개의 수납장 중 2개의 틀을 추가 제작하였으며, 수납장 상판 및 서랍 뚜껑을 일부 제작해 봤는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지 않나요?




처음에는 주민분들께서 목공 공구 사용법에 서툴렀지만, 이제는 마치 전문가처럼 재단하고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면, 참여 주민분들은 집에 있는 간단한 가구 정도는 쉽게 조립하고 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목공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라우드의 '손제준 목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Interview
손제준 강사님

안녕하세요 강사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춘천 약사동에서 원목 문화를 전파하고자 여러 활동들을 하는 '손제준 목수'입니다.

목공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주민분들이 나중에 혼자서도 간단한 목공 작업 정도는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목공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제작의 전 과정을 섬세하게 지도해 드립니다. 직접 서랍장, 문갑 등을 제작하면서 성취감 또한 크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주민분들께서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항상 힘이 나고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공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참가자들이 직접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성취감을 느낄 때 저도 과정을 지도한 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목공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데 저의 지도를 안전하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안전하게 목공을 즐겨 주신다면 목공은 분명 삶에서 큰 즐거움을 주는 취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공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 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며, '목공 교육 프로그램'의 남은 회차 내용은 약사명동 인스타 또는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듯 여행하는, 여행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춘천일기 스테이

글/사진 윤다솜 **인 터 뷰** 강승용(춘천일기 스테이 대표)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27번길 9-1 문 의 0507-1380-7507



I♥ㅊㅊ 춘천일기 스테이

강원특별자치도청과 춘천시청 사이에 있는 오래된 마을 옥천동. 구도심 속 낯선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감성 숙소가 있습니다. 〈춘천일기 스테이〉가 바로 그곳. 춘천의 오래된 골목길 속 자리 잡은 최강 부부(최정혜·강승용)와 봄내를 찾은 여행자들, 그리고 강원도 내 곳곳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이야기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Interview
춘천일기 스테이 대표 강승용

안녕하세요! 육림고개에서 시작된 춘천일기, 지금은 '북스테이' '감성 숙소'로 불리면서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춘천일기 스테이'를 운영하는 최강 부부는 어떤 분들인지 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일기 스테이를 운영하는 강승용입니다. 춘천에 정착하기 전에 서울에서 저는 디자이너로 아내 최정혜 씨는 광고 홍보 마케터로 일해왔습니다. 우선 춘천일기 스테이는 춘천을 방문한 여행자들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머무는 공간이면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춘천 옥천동 오래된 골목 안에 자리 잡은
'춘천일기 스테이' 1층 객실을 없애고 라운지로 변화

연고가 전혀 없는 춘천에 정착하게 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항상 바쁜 일을 하다 보니 저희 부부는 주말마다 캠핑을 즐겼는데요. 캠핑 텐트를 수리하려고 가평에 들렀다가 춘천에 와서 닭갈비를 먹고 하루 묵게 됐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춘천일기 스테이' 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시작된 춘천 여행의 느낌이 좋았어요. 하고 있던 일들에 대한 권태감도 느끼고 있었던 터라 3개월 만에 집을 알아보고 바로 춘천살이가 시작됐어요. 두세 번 여행하면 느낌이 식는 지역이 있는데, 춘천은 3개월을 오가도 좋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기차를 타도, 국도와 고속도로를 타도, 춘천에 들어오는 길목이 모두 아름다워서 그런 것 같아요. 벌써 7년 차 춘천살이 중입니다.



춘천일기 스테이 커뮤니티 행사 모습. 화천 너래안 농장과 함께 기존의 들기름 제품을 리메이크해 '햇들애유'로 재탄생.

2018년 육림고개에 처음으로 열었던 '춘천일기' 매장에서 옥천동으로 이전한'춘천일기 스테이'는 단순히 하루 묵고 가는 숙소가 아닌 듯합니다. 계절에 맞게 다양하고 소소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춘천일기'는 지역 콘텐츠를 발굴해 제작하는 기업으로 시작했어요. 그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구봉산 아래 전원주택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2층 공간을 에어비앤비(공유숙박)를 하며 춘천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현지인 맛집과 숨어있는 춘천의 풍경을 소개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춘천일기 스테이'는 총 12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1층에 있던 객실을 없애고 기존 15개에서 12개로 줄였어요. 2층 6개 객실에는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 '로컬 아트 스테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객실을 꾸밀 때 작가의 그림을 지원받았고, 여행객들이 특정 객실을 지정해서 묵게 되면 해당 작가에게 수수료처럼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기회가 되면 3층 객실까지 확장해보려고 합니다.

'춘천으로 썸머행' '춘천으로 겨울행' '토마토로 썸머행' 등 춘천 체류형 여행상품들을 소소하게 기획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춘천의 장점을 살려서 금요일 퇴근 후 곧바로 춘천으로 여행을 떠나 2박 3일간 편하게 쉬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밖에 한 달간 머무르면서 곡을 쓴 음악가는 이곳 지하 1층에서 콘서트를 열었었고, 여행하며 경험한 것들을 북 토크로 풀어내는 작가도 있습니다. 1층의 객실을 과감하게 없애고 라운지로 넓게 활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간이 생기면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이뤄지고 각자 품고 있던 에너지들이 모여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창출되기 마련이니까요.

누구보다도 춘천의 지역성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은 이 아름다운 춘천이라는 도시에 대한 애정이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닭갈비와 막국수가 대표 이미지로 '춘천'은 그 외에도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곳인데, 그 감정을 추억할만한 마땅한 게 없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춘천일기 스테이 입구 전경

네, 그래서 '춘천일기'가 제작한 굿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 육림고개에 처음으로 '춘천일기' 문을 열었을 때, 춘천을 기념할만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든 굿즈가 패브릭퍼퓸입니다. 닭갈비의 고장답게 관광객들에게선 닭갈비 냄새가 풍겼는데요. 사실 이를 위해 제작했습니다. '물레길, 낭만을 타다', '청평사, 숲길을 걷다', '육림고개, 기억을 걷다' 등 춘천 내 공간이 가진 고유의 향들을 담았습니다. 소양강 처녀상이 서 있는 의암호와 육림고개를 디자인한 마그넷도 있습니다. 또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소소(小小)달력'도 대표적인 굿즈입니다. 춘천을 여행하는 분들에게 명소를 소개하는 용도로 만들었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사실 굿즈 판매만으로는 수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육림 고개 스토어를 접은 후 스테이를 운영하면서 굿즈 제작은 잠시 제자리걸음 중인데요.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춘천 명소를 디자인한 마그넷 굿즈

‘춘천일기 스테이’가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1층 공간을 좀 더 오픈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여행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편의상 1층을 한정된 이들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층 라운지 공간을 좀 더 활용해서 숙박하지 않는 여행객들에게도 열어두려고 계획 중입니다. 궁극적으로 춘천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른 지역을 잇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로컬 리메이크 프로젝트도 그 일환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은 화천 너래안 농장과 함께 만든 들기름 브랜드 ‘햇들애유’입니다. 저희가 직접 들기름을 짤 수는 없지만 지역 창업가들과 함께 협업하면 더 큰 일들을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갖고 있는 재능들이 모이면 좀 더 재밌고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을 앞선 다양한 프로젝트고 확인했습니다. 1층과 지하공간을 활용해 로컬을 중심으로 협업을 해보려 합니다.



춘천일기 스테이 1층 라운지 내부에는 책이 한가득 쌓여 있다.
주인장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북 스테이'로 불린다.

‘춘천일기 스테이’를 다녀간 여행객들은 블로그를 통해 북 스테이로도 부릅니다. 1층 라운지에는 책들이 또 가득한데요. 책을 추천해주신다면?

춘천에 정착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로컬’에 관심 갖게 됐어요. 책 ‘포틀랜드 메이커스’와 함께 모종린 교수님의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두 권의 책을 권합니다.



춘천일기 스테이 2층 객실 아트스테이 모습



강승용
춘천일기 스테이 대표가 추천하는
'로컬'을 담은 책 두 권

춘천일기 스테이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1층에는 강승용 대표가 직접 디자인한 굿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책들이 한가득 쌓여 있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인스타그램 stay.chuncheondiary를 팔로우하셔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 지역 소식을 받아보세요!

약사리문화마을 주민 기록

약사리 문화 마을?

도자기 굽고, 기타 선율이 흐르는 마을

글/사진 오현주(도시재생 프로그램 참여 시민)



도예 체험

약사명동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며 여러 가지 마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약사마을 거리를 표상화하는 도자기를 구웠고, 약재상 거리의 역사를 떠올릴 쌍화탕 생각나는 수제 맥주처럼 마을 관련 상품들이 구상되었으며, 이 지역 동네 곳곳을 거닐었을 권진규나 박수근 같은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들을 기억해내었다. 오랜 시간 이곳을 스쳐 간 많은 이들에게 묵묵히 자리를 내어 주었던 죽림동 성당 같은 골목 곳곳의 오래된 건물들이나 상징물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되새기고, 그동안 잊혀서 켜켜이 쌓여 있던 먼지를 털어낸 공간들은 다시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유 장소로 단장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무채색처럼 멈춰져 있는 듯 보이는 일상은 각각의 삶에서 "징가 징가 징가 징가 … 하나, 둘, 셋, 넷!" 마을에 울리는 활기찬 리듬 소리와 함께 기지개를 켜며 깨어나기 시작한다.

"자, 다시 시작해 볼까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워진 기타 피크(삼각형 모양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주로 현악기의 줄을 뜯는 데 사용되는 도구)를 들고, 강사님의 구호에 맞춰 기타 줄을 튕긴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바다 건너…" 셔플(Shuffle)이나 A7, D, G, Em처럼 생소하기만 했던 재즈 리듬의 이름과 그 방식, 그리고 기타 코드의 운지법을, 왜 그런지 요즘 노래와는 달리 정겹고 익숙한 '연가' 가사에 맞춰 숙지해본다. "선생님, 여기가 잘 안돼요!" 2회, 3회를 거듭 참여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기타반 터줏대감의 손놀림에 비해 오히려 씩씩한 도움 요청은 옆집 쌍둥이 할머니도 반길 수밖에 없다. 매주 2회 기타를 하나씩 어깨에 메고 배움의 장소인 [어린이 작업실]로 모여드는 발걸음은 가볍고 즐겁다.

"이렇게 저의 로망이었던 기타연주를 하다니요. 너무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하지만 사실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했었는데, 이러한 기회가 생겨서 여러 동네 분들과 같이 처음부터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도 매우 친절히 잘 가르쳐주시고요."

"나이가 들어서 사실상 누구 앞에서 악기를 다루며 노래 부를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살림만 하던 우리가 기타를 연습해 작은 공간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기타반을 통해서 버스킹도 하다니 너무 행복했답니다."



기타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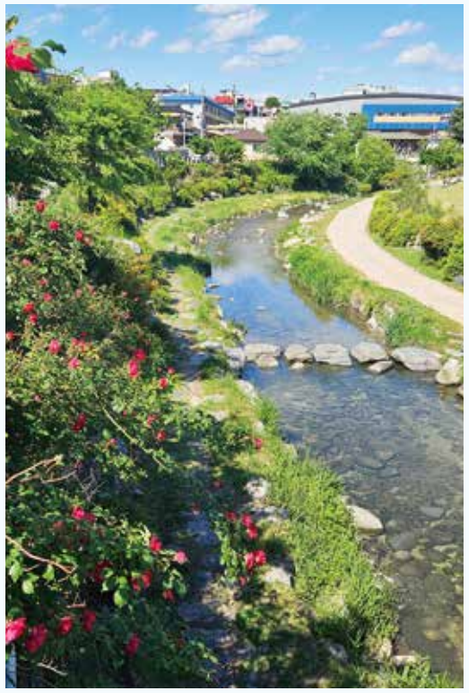
3회를 거쳐오며 약사명동의 기타반이 버스킹을 한 장소들도 여러 곳이다. 그동안의 연습을 뽐낼 수 있는 무대를, 멀리는 춘천의 공지천 공원, 석사교 상설 무대, 시청 앞, 그리고 가까이는 육림고개, 약사마을의 [터무니 창작소]에 만들어 기타 보면대 위에 악보를 펼치고 떨리는 공연을 펼쳐 보인다. 든든하게 음 이탈을 커버해주는 강사님을 흘끔흘끔 살피는 와중에도 동네에서 크게 울리는 기타 선율은 자랑스럽기만 하다. 그 선율에 이끌린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지막 인사에 박수와 환호를 외쳐준다.

우리가 사는 도시 공간은 생산과 소비, 거주 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공간은 더 이상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여가와 떼어낼 수가 없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함께 참여해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문화가 가득하다. 이제부터의 관건은 어떻게 이러한 문화를 지속화할 수 있는가다. 이후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기타를 고이 모셔 두고 있기도, 또 적극적으로 마을을 넘어 기타 동호회에 가입하여 배움을 지속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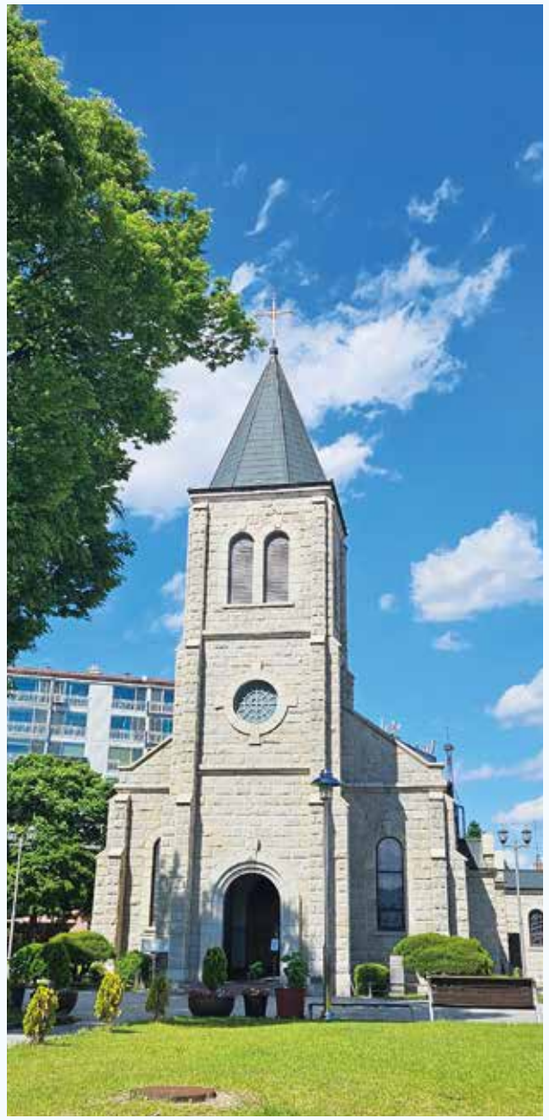
"조금 더 프로그램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다 보면 우리 내부에서도 지속화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마도 이런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인 거 같아요."



〈주민이 주인공〉 희망버스킹



약사천 사진



죽림동 성당

[약사리 공유공간]에 가면 마을 주민들이 작업했던 도자기도, [집수리도서관]에는 권진규 작가의 발자취를 따라 주민들이 작업한 테라코타 전시물도 감상할 수 있다. 춘천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 죽림동 성당에는 하얀 철쭉과 데이지가 피었다 지고, 약사천에는 창포와 장미 넝쿨이 피어오르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취해 걸으며 약사의 기억을 새기다가 어디선가 기타 선율이 흘러나온다면 잠깐 멈추어 귀 기울여 보자.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시작된, 약사명동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소소하지만 살만한 문화가 곧 깨어날 약사천의 수많은 장미처럼 붉고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약사리문화마을 주민 기록

약사명동, 예술의 새로운 산실로!

테라코타 예술 프로그램으로 빛나는 지역 활기

글/사진 고종건(도시재생 프로그램 참여 시민)



집수리도서관 앞에 펼쳐진 주민 작품들
멋진 테라코타 거리가 되었다.

원도심 지역으로 근대문화 유산들이 자리 잡고 있는 약사명동은 최근 예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테라코타 예술 프로그램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이 새로운 활력과 신선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약사명동 테라코타 예술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에게 테라코타의 매력을 알리며, 창의성과 예술적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라코타(terra-cotta)는 이탈리아어로 '구운 흙'을 의미하며, 그 특유의 붉은 색감과 자연스러운 질감은 예술 작품에 독특한 매력을 더해줍니다. 테라코타 작품으로 유명한 춘천고 출신 권진규 조각가는 한국 근대조각의 거장으로, 그의 인연이 약사명동과 테라코타 예술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테라코타 예술 프로그램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약사명동 공유공간에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열렸습니다. 지역주민 약 60여 명이 참여하여 자신만의 테라코타 예술 작품을 만들었고, 이러한 작품들은 약사명동 골목길 곳곳에 전시되어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약사명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정한길 이사님

이아정 사무국장과 약사명동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이혜진 코디네이터는 참여자들의 열정과 창의성에 감동하였다고 전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예술 작품을 만들며 참여자들끼리 소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수의 어르신도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에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약사명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정한길 이사는 **"춘천과 약사명동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우리 마을의 독특한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을 브랜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사명동의 이야기를 담은 캐릭터 '몽어'를 제작 했습니다. 이를 통해 테라코타를 활용한 마을 브랜드를 조성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마을을 더욱 활기차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라며 테라코타를 활용한 마을 브랜드 조성에 열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약사명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이로이스 이사는 **"처음에는 흙을 만지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점 흙의 촉감을 느끼며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특히, 제가 만든 테라코타 작품이 마을 곳곳에 전시되는 것을 보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마을이 예술로 활기차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들과도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에요"**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공예를 처음 접해본다는 김성규 참여자는 **"공예는 처음 접해봤는데, 약사명동의 테라코타 예술 프로그램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점차 테라코타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웃 주민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이 일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자신의 작품이 약사명동 수공예 팩토리 3층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글쓴이의 작품 〈목마른 도깨비〉



작업을 잠시 멈추고 찰칵!



테라코타 거리(1)



테라코타 수업

이렇듯 약사명동 주민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평범한 흙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며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마을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작품들은 마을 곳곳에 설치되어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라코타 거리가 조성되며 권진규의 미술 세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약사명동의 고유한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약사명동 테라코타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에게 창의적이고 활기찬 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와 문화를 활성화했습니다. 테라코타 거리가 조성되며 로컬의 특징을 담은 로컬 브랜드 골목이 만들어졌고 이는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테라코타 거리를 통해 새로운 예술의 산실로 떠오른 약사명동이 앞으로도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마을로서의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KEYWORD 도시재생

교육

#도시재생 실무자 필수코스 #역량강화 #도시재생교육

2024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대학원대학

글/사진 정임정 코디네이터(춘천시)

사업명	2024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대학원대학 미래과정
장 소	영월군 영월군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회의실
기 간	2024. 4. 25.(목) 13:00~17:00
대 상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실무자, 마을활동가, 담당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목 표	도시재생 관계자 업무 역량강화

날씨가 화창했던 4월, 도시재생대학원 미래과정 1차 마지막 교육을 받으러 영월에 다녀왔습니다. 도시재생대학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시재생 사업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미래과정은 가~라까지 총 4개의 과정으로, 이번에 다녀온 마지막 '라'과정은 영월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월역

춘천에서 기차를 타고 영월을 간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영월역이 고풍스러운 자태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가니 영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장! 2층으로 올라가니 담당자님이 맛있는 음료와 다과를 주시며 교육장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용규 센터장

첫 번째 교육은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용규 센터장님께서 정선군 도시재생 '정선로컬써밋' 운영을 주제로 설명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등장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단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개최된 정선로컬 써밋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센터장님의 열정이 강의에서 느껴질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정선로컬써밋

정선로컬써밋은 23년 3월 제1회'강원도 인구소멸 위기 대응','마을과 로컬 크리에이터'를 주제로 한·일 콘퍼런스가 개최되고, 11월 제2회 '5만 명 이하 지역에서 로컬크리에이터로 살아가기'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정선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에서 활동하는 소도시 청년 창업가 및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5만 이하 지역에서의 농업, 육아, F&B, 예술을 주제로 토크콘서트, 인사이트 공유 등 지역이 변화하는 방법과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 대책을 모색하는 행사이다.

센터장님은 청년들이 지역의 문화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었으면 좋겠고, 도시재생 담당자들도 주체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시며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KEYWORD 도시재생

교육

두 번째 시간은 원주시 우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백승우 사무국장님께서 원주의 유명한 '원주 하이볼 축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밝은 미소와 반짝이는 눈빛으로 시작한 두 번째 강의! +.+

원주 하이볼 축제는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나온 성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축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제 이름부터 시기, 장소, 횟수, 소재 그리고 주민과 상인들의 입장까지 하나하나 센터에서 많이 고민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2023 원주 하이볼 축제

- **기간 :** 2023. 5. 26.(금) ~ 6. 30.(금)
- **시간 :** 오후 18:00 ~ 22:00
- **장소 :** 원주시 우산동 생태하천변
- **소개 :**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무더운 여름 우산동 야외에서 맛있는 하이볼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 있는 조명, 하천을 바라보는 조망,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하이볼, 분위기를 한 층 높여주는 적당한 공연으로 한 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이곳 '원주하이볼 축제'에서 시원하게 날려버리자.



백승우 사무국장









하이볼축제 (ⓒ강원일보, ⓒ우산동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너네(센터)' 축제가 아닌 '우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2022년도 축제 때 상인들의 입장에서 상가 물품 구매 영수증 1장에 인당 컵 하나를 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게 하여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라는 사무국장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중물 사업이니 주민과 상인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효능감을 느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경험을 심어주고 싶었다는 센터의 목표와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알고 진행한 축제는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EYWORD 도시재생

교육



김학조 센터장



허예지 코디네이터

마지막은 영월군 도시재생 사업 소개와 현장 견학 시간.

영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김학조 센터장님과 허예지 코디네이터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컬처노믹스'와 센터의 사업, 현장 견학 장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듣고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컬처노믹스

Culturenoomics = culture + economics

문화(culture)와 경제(economics)를 합성한 용어

-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교수인 피터듀런스(Peter Duelund)에 의해 처음 사용
-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현지화의 개념으로 사용





골목길 디자인사업 〈포리벽화(포리 : 덕포리 캐릭터 오리)〉



골목길 디자인사업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머무는 아름다운 벽화거리〉





영월愛 문화플랫폼 〈게스트하우스〉

마을 골목마다 입혀놓은 덕포리 캐릭터인 포리. 너무 귀엽지 않나요?
숲속의 포리 발자국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귀여운 포리를 시작으로 경관이 개선된 마을들, 하드웨어 사업으로 지어진 시계탑, 거점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한 거점시설을 보며 걷다 보니 아름다운 벽화 거리를 끝으로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원교육은 이번이 네 번째인데 들을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어 도시재생 실무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도 이론과 현장 견학을 통해 '도시재생'의 의미가 한층 더 와닿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체적인 담당자가 되기로 다짐을 해보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KEYWORD 도시재생

도서리뷰

#모종린 #로컬이강한도시와동네를탐하다 #로컬생태계

LOCAL BRAND REVIEW 2023

글 이경은 코디네이터(춘천시)
사 진 출처 별도 표기
저 자 모종린(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보민(작가), 박예솔(작가)
출 판 포틀랜드스쿨



부산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 부산 관광 포털 VISIT BUSAN)

올해 초 치읓치읓 제작 회의를 위해 편집회의를 열었다. 도시재생 사업 원고는 사업이 계속되는 한 소재가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오목조목 알차게 전달할까를 고민할 뿐 소재만큼은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늘 고민되는 것은 마을 원고였다. 로컬 문화가 주요 산업으로 떠오른 지금, 치읓치읓에 우리 도시재생 사업 구역의 로컬 브랜드를 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 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현장별로 어디를 소개할 것인가 리스트를 작성하려는데 자꾸만 대화의 끝에 원초적 질문이 무겁게 매달렸다. 그래서 로컬브랜드가 무엇이란 말인가? 로컬 브랜드와 상가의 다른 점은? 로컬브랜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성공한 창업가의 요즘 표현인가?

저자는 로컬브랜드를 **로컬 차별화로 전국적인 평판을 얻은 지역 기반 기업**이라고 정의했다. 로컬브랜드는 **지역 자원을 사업에 활용**하고, **기업 경영의 어느 부분(브랜드, 스토리텔링, 건축 등)에 지역성을 반영**해야 하며, **그만의 창의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로컬브랜드는 특정 지역과 상권에 집적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공통적으로 ①중심지 문화, ②청년 인구의 밀집, ③원도심 형태의 건축 환경, ④로컬크리에이터의 존재라는 네 가지 자산이 존재한다.

로컬브랜드
로컬 차별화로 전국적인 평판을 얻은 지역 기반 기업



로컬이 강한 지역의 4가지 자산



부산 영도구 깡깡이예술마을
(ⓒ 부산 관광 포털 VISIT BUSAN)

저자는 로컬브랜드리뷰2023(이하 LBR)을 통해 위의 네 가지 자산, 지역만의 스토리로 무장한 도시13곳, 앞으로 주목할 만한 100개의 로컬브랜드를 소개한다. 우리는 부산 영도구, 강원 강릉시를 살펴보자!

[부산 영도구] 변방에서 로컬문화의 진앙지가 되다

영도구는 부산의 작은 섬이다. 이 섬은 지리적 위치로만 볼 때 변방에 속하지만, 영도만의 역사성, 잘 보존된 골목 문화, 그리고 그곳을 채우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조화를 통해 로컬문화에서만큼은 진앙지가 되었다.

부산 원도심의 미래를 제시하는 도시재생 스타트업 '돌아와요 부산항에(RTBP)'는 폐쇄된 조선소 건물을 활용해 창업 공간(일), 상업 시설(놀이), 주거 시설(주거)을 조성하고, 구성원 사이의 협업, 공동 행사를 통해 내부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유명한 깡깡이예술마을도 영도구에 있다. 이곳을 기획한 '플랜비 협동조합'은 녹슨 배 표면을 망치질로 벗겨낼 때 '깡깡' 소리가 난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붙은 동네 별칭을 그대로 살려 마을 브랜드로 만들었다. 깡깡이예술마을은 마을박물관, 문화사랑방 등을 운영하며, 마을 콘텐츠를 활용하여 마을굿즈 판매, 마을 투어,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
(ⓒ 부산 관광 포털 VISIT BUSAN)



부산 영도구 깡깡이예술마을
(ⓒ 부산 관광 포털 VISIT BUSAN)





'삼진어묵'은 지역 상생을 위해 '삼진이음'을 설립하고, 노포 브랜딩, 로컬콘텐츠 기획, 전통 기술교육 등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삼진이음)

'흰여울문화마을'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은 영화 〈변호인〉, 〈범죄와의 전쟁〉 등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원형 그대로 유지된 마을 모습은 지역 예술가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준다.

로컬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며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흐름은 영도 대표 브랜드 '삼진어묵'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삼진어묵은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삼진이음'이라는 비영리법인 회사를 창립하여 '전통 기술교육', '로컬 아카이빙', '노포 브랜딩', '로컬 콘텐츠 기획 및 운영' 등 지역과 로컬크리에이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구옥 6채를 매입해 만든 복합 문화 공간 '아레아식스'는 지역의 앵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건물은 지역 상생을 위해 봉래시장으로 통하는 길을 함께 설계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봉래시장에 자리한 50년 역사의 전통 가게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어떤 브랜드가 지역을 기반으로 크게 성장했을 때 로컬생태계의 새순이 움트기 시작한다. 영도에서 만난 RTBP, 삼진이음, 모모스커피, 무명 일기 같은 로컬 브랜드들이 이곳 로컬을 더욱 크게 성장시켜줄 것이다.



강릉 보헤미안 커피 박이추 대표
(ⓒ 보헤미안 인스타그램)



강릉 테라로사 김용덕 창업자
(ⓒ FOODNEWS)



강릉 테라로사 커피공장 본점
(ⓒ 테라로사 홈페이지)

[강원 강릉시] 국내 가장 수준 높은 브랜드 생태계를 갖추다

강릉은 창의적 기업가에 의해 지역 환경, 전통 산업과 큰 관련 없는 커피 문화 산업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를 개척한 사람은 2000년대 초반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을 시작한 '보헤미안' 박이추 대표와 '테라로사'의 김용덕 대표다. 두 기업가를 필두로, 강릉시 전역에 300개가 넘는 커피 전문점이 운영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강릉 커피 전문점은 커피 소매점에서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 커피를 공급하는 로스팅 비즈니스로 성장했고, 연간 5,000여 명의 바리스타를 배출하는 인력 양성소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지역의 대학들도 관련 과정을 개설하여 보조하고, 지자체는 매년 10월, 20만 명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의 커피 축제를 개최한다.



매년 10월 개최되는 강릉 커피 축제
(ⓒ 강릉 커피 축제 홈페이지)

강릉 커피 산업의 비밀은 로컬브랜드 생태계에 있다. 커피 콘텐츠를 쇼케이스하고 소비자가 체험하게 하는 공간이 도시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앵커 상업 시설(로컬콘텐츠 타운), 앵커 생산 시설(로컬 생산 단지), 앵커 상권(로컬 브랜드 상권)이 집적되어 있어 로컬생태계를 이루었고, 이는 커피 콘텐츠를 '거리'에서 '문화'로 승화시켰다.

강릉을 대표하는 커피 문화는 외부에서 수입된 인공적인 지역 문화이다. 순두부 젤라토, 순두부 스프레드의 성공이 보여주듯이 강릉 전통문화와 지역 자원에 기반한 상품의 개발도 이어진다면, 강릉 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저자는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를 끊임없이 배출하는 생태계를 이룩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로컬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LBR 2022와 2023을 통해 로컬브랜드 생태계로 발전할 잠재력이 가장 큰 도시와 동네 13곳, 글로벌로 성장하는 로컬브랜드 20곳, 새롭게 떠오르는 로컬브랜드 212곳을 소개한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닌 국내 사례로 가득 채운 LBR이다. 로컬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훌륭한 지침서가 또 있을까 싶다.

춘천도시재생 교동소양

주민 건강 리더 발굴 프로그램

사 업 명 주민 건강 리더 발굴 프로그램
기　　간 2024. 03. 18. ~ 2024. 07. 08.
장　　소 커뮤니티 돌봄센터 A동 1층 GX룸

사업내용 주민 건강 리더 발굴 프로그램
문　　의 033-245-5272 / 010-3104-1986

1. 주민 선택형 신체활동 4종

① 도구 신체활동
스텝 박스, 요가 매트,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등의 운동 도구 이용 및 활용 방법 교육

② 건강 운동 상담
인바디, 혈압 측정, 신장 체중계 등 의료기기 이용 및 활용 방법 교육

③ 건강 관리 강좌
15~20분 구성의 각 6편 동영상 강좌
(1회차) 건강한 마을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2회차) 즐거운 생활방식으로 우리 힘 북돋우기
(3회차)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과 영양 챙기기
(4회차) 스트레스 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5회차) 심장 건강과 혈압 관리
(6회차) 웰니스한 습관으로 건강을 지키자

④ 비대면 신체활동
15~20분 구성의 각 4편 동영상 강좌
(대한체육회 '함께 배워 봅시다' 콘텐츠 활용)

2. 시니어 헬스케어 운영

소도구 신체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노노케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기공체조(※공간 활용 외부 프로그램 지원)

춘천시민과 어르신을 위한 기공 수련 교실 프로그램



(교동) 주민건강리더발굴



(교동) 주민건강리더발굴_시간표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 치읓치읓 14호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ㅊㅊ(치읓치읓)'은
춘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분들의 활동 소식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 공간입니다.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더 많은 분들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홈페이지〈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uris.chuncheon.go.kr
블로그〈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blog.naver.com/c_crsc
유튜브〈춘천도시재생〉
https://www.youtube.com/channel/UCdg0FbJGB_AKPTkhPhjg3Bg
인스타그램〈춘천도시재생〉
https://www.instagram.com/urischuncheon/

약사리마을 소통공간
카페〈춘천 약사리 문화마을〉
https://cafe.naver.com/munhwavillage
인스타그램〈춘천 약사리 문화마을〉
https://www.instagram.com/yaksa_village
페이스북〈춘천 약사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YaksariFriends

교동소양동 소통공간
인스타그램〈교동 소양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instagram.com/vital_village_
페이스북〈교동 소양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Gyo2019

조운동네 소통공간
인스타그램〈조운동네〉
https://www.instagram.com/joundongne
유튜브〈조운동네〉
https://www.youtube.com/channel/UC_haKq39kpwy6FDLgW97YtA
블로그〈조운동네〉
https://blog.naver.com/joundongne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춘천도시재생 소근소근문화마을 약사리 문화마을 봉의산 비탈마을 조운동네 50호 만들